

인터뷰. 《화전書傳》 저자 최열

격변기를 살다

홀연히 사라진 내 스승들,

당신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림을 좋아하고 유난히 잘 그리는 소년이 있었다. 예민하고 날카로운 감수성을 가진 소년이었다. 겉으로 봤을 때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마음 속에선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있었다. 소설과 시, 역사를 향한 욕망이었다. 감성의 촉수를 자극하는 것들을 잘 겹쳐보니 소년의 미래 얼굴에선 미술사학자의 모습이 보였다.

미술의 역사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꿈꾸던 바를 이룬 셈이다. 미술평론가이자 가나아트 기획실장 최열(50) 씨는 지금 지천명을 맞은 중견 학자가 되었다.

피 끓는 젊은 시절엔 미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다고 외치느라 바빠 살았다. 유신시절, 독재정권이 시민들을 짓밟던 때엔 졸업작품 가운데 하나를 'ant'란 글씨로 채워 화제의 미학도로 손꼽히기도 했다.

“당시 미술대학에는 누가 독재를 하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았죠. 전 조금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나 《베트남 전쟁》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 때부터 미술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시절엔 누구나 다 그랬다”고들 하지만 예술시장주의에 빠져 있는 미학도들에게 최씨의 행동들은 별스런 것이었다. 때가 때이기도 하거니와 현상보단 변화를 좋아했고, 말보단 행동을 좋아했던 성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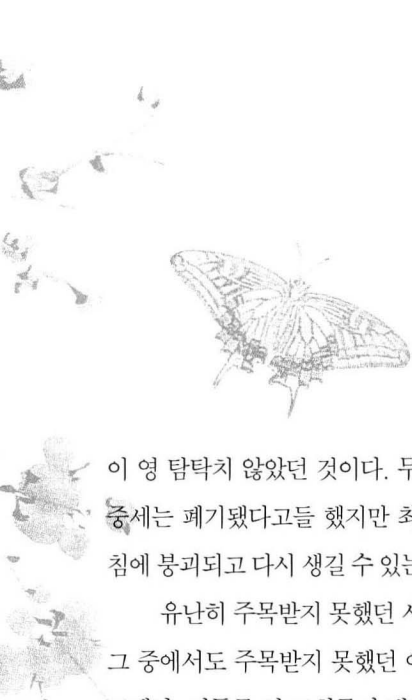
최씨는 “문화니, 예술이니 하는 것들이 거창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밝힌다. 지금 생각해 보니 사람들의 의식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교감하는 역할로도 예술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그 역할을 신뢰하며 최씨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미술활동을 펼쳤다. 민족과 민중을 위한 예술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정신을 담보할 것이란 믿음으로 민족미술협의회, 민중민족미술운동연합에서도 활동했다. 이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산 경험도 있다. 참여미술에 대한 관심은 《한국현대미술운동사》, 《한국근대사회미술론》 등의 책으로도 내비쳤다.

근간에 나온 그의 책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활동한 우리 화가 28명의 전기를 담은 《화전》이다. 미술과 시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던 최씨는 이번 책에서 미술사학이 주목하지 않았던 19세기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유럽도 그렇잖습니까. 르네상스 시대 하면 가슴을 뛰게 하는 부흥기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반면 쇠하는 시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하지 않지요. 사실 특정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언제가 됐든 관계없이 꾸준히 그림을 그려온 예술가들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화전》은 붓대를 잡고 화폭 위에 자기세계를 펼쳐냈던 예술가들,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시작한 작업이다. 사실 19세기와 20세기를 배경으로 잡았던 데는 역사단절론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중세 붕괴 후 서구미술을 무모하게 이식한 다음 계몽기를 맞았다”며 이 시기를 슬쩍 넘겨짚는 태도들



書



이 영 탐탁치 않았던 것이다. 무조건 서구의 충격을 받으면서 중세는 폐기됐다고들 했지만 최씨가 생각하는 역사는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유난히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였던 이유도 있으나 최씨는 그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드 화가들에게 애정을 표했다. 서두를 연 조희룡이 대표적 인물이다. 다른 미술서 같았으면 추사 김정희로 문을 열었을 것을 최씨는 과감히 조희룡으로 《화전》을 열었다. 김정희로부터 “문자의 향기가 없다”는 혹평을 받았던 조희룡은 주관을 보다 강렬하게 표현했던 화가로 재평가됐다. 또한 화리진경론(화가의 진보를 뜻하는 말로 감식이나 비평, 창작세계의 발전을 지향하는 이론 체계)을 주장한 비평가로서, 전기 형식의 미술사 전통을 완성한 미술사학자로서도 인정을 받았다. 또한 화단과 평단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한 홍세섭, 이도영 같은 화가들을 비롯, 우리 옛 그림의 신감각을 자랑했던 김수철 등도 미술역사 안에 당당히 포함시켰다.

이 스물여덟 명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일까. 최씨는 “내 마음 속에 속 들어왔던 사람들, 마음을 주게 만들었던 화가들”이라고 설명한다.

“소개한 화가들 모두 개성이 다릅니다. 기준이나 공통점이라면 변화의 시기에도 자기색을 구축하고 개성과 독창성을 보여줬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녹록찮은 시기였음에도 자기색을 고집하고 뜻을 펼쳐보였던 개성적인 인물들 말입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간다. 신감각과, 이색화풍의 절정을 완성한 김수철, 조선의 산천을 개성 넘치게 표현하며 조선의 자연을 자기화하며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변관식. 모두 똑심으로 일가를 일군 인물들이다.

“10년간 여러 잡지에 기고한 글인데 사실 쓰는 동안 한문 독해능력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스페인어 모른다고 스페인 여행을 못 쓰라는 법 없다고, 한문 모른다고 과거 한국 미술사를 쓰지 말라는 법 없잖습니까. 감사하게도 해방 이후 고전을 국역해 놓은 어르신들의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찾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보람된 작업이었지요.”

현재 최철원 씨의 직함은 두 개다. 하나는 미술평론가, 또 하나는 가나아트 기획실장이다. 평론가나 큐레이터는 그림과

작가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이라는 데서 중첩되는 업무가 많다. 물론 평론가에게 작품 전달하고 해석하는 일에 덧붙여 미술계의 앞날을 논하고 평하는 임무, 그리고 스승이 되어 후학들을 기르는 몫도 주어진다. 최씨는 이 일반적인 평론의 기능에 덧붙여 잊혀진 것들을 복원하는 미술평론을 해보고 싶다고 밝힌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나 작가들은 대부분 조명받지 못한 인물들이 많지요. 이번 책엔 소개되진 않았지만 김용준 선생, 김복진 선생의 경우도 대단한 작업을 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에게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을 찾아 전집도 만들어드리고, 학술대회도 준비합니다. 잊혀진 분들의 삶을 복원하면서 그분들의 자취를 가치 있게 전하는 게 제 작업이며 행복입니다.”

최씨는 격변의 시대를 살다간 화가들을 소개한 이번 책을 통해 독자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경제도 엉망, 정치도 엉망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한탄하는 한국인들의 자기 비하는 더 이상 듣기 싫다. 우리 스스로 “조선놈은 이 정도밖에 안돼”라고 비난하는 태도는 이제 버리자는 권고다. 그런 뜻에서 화가를 소개할 때 “중국의 영향,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은 모조리 뺐다. 외부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제 빛을 내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미술사를 공부했던 최철원 씨에게 특별히 스승이라 불릴 만한 사람은 없다. 아니 선생은 많았지만 다만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최씨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화가들과 교감한 이유, 교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세상을 떠나버린 화가들이 좋다. 살아 곁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진 기분이 들지만 떠나버린 이들은 텅 빈 마음 같아 너무도 편하다.”

미술과 문학, 역사. 감수성이 유난히 예민한 소년이 좋아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이다. 그런 연유로 중견학자가 돼버린 그의 책, 《화전》에 그림이 있고, 역사가 있으며 사람이 존재한다. 사람은 사람이 되 아쉽게 떠나버린 사람들이요, 비주류란 이름으로 홀연히 사라진 인물들이다. **문우**

취재 | 김청연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